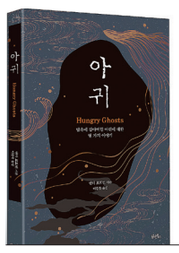
탐욕에 물든 10가지 아귀 이야기



아귀
앤디 로트먼 지음
이종복 옮김
담앤북스/ 1만8000원

불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대상
좋지 못한 과보라고만 알 뿐
아귀를 자세히 알기는 어려워
〈백연경〉 속 이야기 번역 · 정리



보석사 감로왕도 중 일부. 화면 중앙의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두 아귀는 천도 받아야 할 고혼을 상징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아귀(餓鬼)는 불교에서 늘 굶주린 귀신이다. 보통은 태산 같은 몸집에 입을 바늘구멍 같이 표현하니 굶주릴 수밖에 없는 신세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을 먹는다고 해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고, 굶주림의 이유도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불교의 삼독 가운데 첫 번째인 '탐(貪)'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 그렇기에 이들은 윤회하는 육도 중 삼악도, 그 안에서 지옥도보다는 조금 나은 '아귀도'에 산다.

저자의 말마따나 아귀는 불교신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관한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윤회하면 스스로가 아귀가 되는 셈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귀라는 것은 좋지 못한 과보라고 어렴풋이 알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아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아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스미스대학에서 종교, 불교, 남아시아학을 가르치는 앤디 로트먼 교수가 쓴 〈아귀〉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백 가지 인연 이야기', 흔히 말하는 〈백연경〉에 등장하는 아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연경〉은 고대 인도 불교신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선집으로, 수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초기경전이다. 10개의 장이 각각 10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은 다섯 번째 모음집 속 10가지 아귀 이야기를 번역했다. △사탕수수 방앗간 △음식 △마실 물 △똥 단지 △목건련 △웃따라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상인 △자식들 △잠발라라는 10가지 이야기 중 세존께서 목건련 존자에게 가르침을 전한 '똥 단지' 이야기가 눈에 띈다.

목건련은 어느 날 발가벗은 온몸이 털로 뒤덮이고 바늘귀만한 입과 산만한 배를 한 아귀를 만난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간신히 똥을 먹고 있던 아귀의 사정이 궁금한 목건련은 말을 건넸지만 아귀는 세존께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들어보라고 말한다.

세존을 찾아간 목건련은 그 아귀가 어떤 과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인지 묻는다. 세존은 오래 전 홀로 깨달은 자(벽지불)가 병에 걸려 건강에 좋은 음식을 구하러 탁발을 나섰을 때 이야기를 전한다. 벽지불은 한 상인의 집에 탁발을 했고, 상인은 수행자의 모습에 감화돼 그의 며느리에게 공양물을 내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좋은 음식을 건네면 벽지불이 다시 찾아올 것을 걱정해 발우에 똥을 가득 담아 위에 음식을 덮어 가리고 돌려준다. 발우를 받아 든 벽지불은 지독한 악취를 느끼고 한쪽에 발우를 버린 뒤 자리를 떠난다.

세존은 "그때 그 상인의 며느리가 지금 그 아귀다. 그런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항상 지옥 중생이나 짐승이나 아귀로 다시 태어나 항상 똥을 먹는다"며 "비열함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그 아귀와 같은 과오를 짓지 않는다. 목건련이여,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설한다.

〈백연경〉에 등장하는 아귀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초기불교에서 묘사하는 아귀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의 윤리관과 사후론까지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 예술에 아귀의 모습이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

아귀라는 질병의 근본 원인은 산스크리트어로 '맛짜랴(mātsarya)'라는 해악이며, 이 해악을 기른 결과다. 저자는 맛짜랴를 'meanness'로 번역했고, 역자는 다시 '간탐(慳貪)'으로 번역했다. 'meanness'는 무엇을 주거나 함께 나누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며, 간탐은 몹시 인색하고 욕심이 많다는 뜻이다.

우리 시대 대표 정신적 지도자 두 사람이 발견한 기쁨의 진리



기쁨의 발견 JOY
달라이라마 ·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글
라파엘 로페스 그림
안희경 옮김/ 하루헌
1만7000원

"너를 슬프게 하는 일에만 빠져 있으면 네 눈엔 슬픔만 보일거야. 하지만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어디에서나 기쁨을 볼 수 있단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티베트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함께 쓴 그림책 '기쁨의 발견'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도 기쁨은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기쁨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자신과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

보통의 우리처럼 힘든 유년 시절을 경험한 두 종교지도자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일상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했는지 조곤조곤 사려 깊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때로는 슬프고, 어떨 때는 화가 나고,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폭풍 멎은 하늘에 높이 떠오른 무지개를 기억하자"고 당부하는 저자들의 메시지는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큰 응원과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미국 출신 저명한 삽화가인 라파엘 로페스가 일상의 기쁨에 눈뜨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그려냈다.

저자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국민과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2007년 미국의회에서 수여하는 황금 메달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방문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정함과 자비를 건네고 종교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환경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평화를 존중하는 티베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도 인류는 하나라는 생각을 널리 전하고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해 현재 다람살라에서 살고 있다.

데스몬드 엠필로 투투 대주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평등·정의·평화와 인종 간 화해를 추구하는 국민 운동을 대표하는 지도자다. 1984년 노벨 평화상을, 2009년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훈장을 받았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주의로 전환된 후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돼 민족 분규와 탄압을 겪은 국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도덕성을 몸소 실천한 지도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2021년 12월 26일 영면했다.

임은호 기자



광주와 무등산 면면을 돌아보다

불광미디어, 월간 '불광' 2월호 발간



불광미디어에서 발간하는 월간 〈불광〉 2024년 2월호가 발간됐다. 이번호 특집 주제는 '무등등(無等等), 광주 무등산'으로 광주와 무등산의 불교를 조명한다.

실제, 광주 불자들은 광주를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고을'로 칭한다. 무등산에서 발원한 샘물이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극락강을 흘러 영산강에 합류한다. 극락강에는 극락교라는 다리가 있으며, '극락강역' '극락초등학교' '서방시장' 같은 불교 지명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 무등산의 무등(無等)이 불교적 지명임은 새삼스럽지 않다.

〈불광〉 2월호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광주천을 따라 산재한 석탑을 비롯한 불교 유적이다. 성거사지(聖居寺址) 오층석탑, 지산동 오층석탑, 십신사지(寺址) 석불과 석당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광주 중심가에 거찰이 산재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주목되는 유물은 대황사지(大皇寺地)로 전해지는 옛 전남도청(현 아시아문화전당)의 고려시대 석등(石燈)이다. 옛 전남도청은 조선시대 광주읍성이 있던 곳으로, 고려시대의 석등은 이곳이 본래 절터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최후 보루였던 곳이 절터였음이 새삼스럽다.

무등산의 사찰에 대해서는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봉암 외에 담양의 개선사지(開仙寺址)와 서봉사지(瑞峰寺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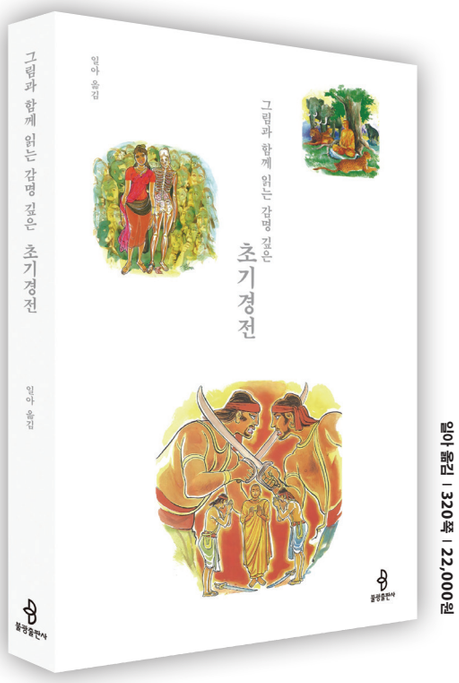
개선사지에는 통일신라시대 경문왕과 왕후, 공주가 발원한 섬세한 석등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초에는 무등산 권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봉사지에서는 고려시대 석조보살상과 석탑 외에 많은 불보살상과 나한상이 출토돼 증심사와 국립광주박물관, 전남대에 소장돼 있다. 이는 광주와 무등산이 아미타부처님이 상주했던 극락세계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이외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김동수 열사', '광주를 대표하는 신행봉사단체 자비신행회' 등을 취재했다.

신중일 기자

초기경전 분야의 권위자 일아 스님이 가려뽑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붓다의 말씀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그림과 함께 읽는 인류의 고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핵심 구절

대중과 제자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초기경전! 그 속에는 군더더기가 없이, 소박하고도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기불교 연구자이자 초기경전 번역자인 일아 스님이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주요 구절을 가려뽑았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대중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구절을 접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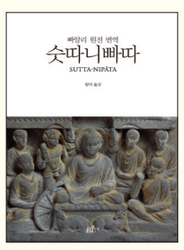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일아 스님의
빠알리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초기경전

빠알리 원전 번역
담마빠다
일아 옮김
224쪽 | 14,000원



빠알리 원전 번역
숫따니빠따
일아 옮김
428쪽 | 19,000원



법구경과 함께하는 365일 마음 일력
오늘, 담마빠다 한 구절
일아 글, 김경연 그림 | 368쪽 | 17,000원

